

수원새빛돌봄, 누가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였을까?

황소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 수원새빛돌봄 시행 2년, 사업확대와 함께 이용 규모 급증

- 2023년 7월 시행 이후 지원기준(중위소득 75%→120%), 서비스 유형 (4대11종→8대16종), 지원한도(100만원→150만원) 확대
- 지난 2년간, 이용 적합자 3,432명→5,193명(+51.3%), 이용건수 34,173건→120,588건(+252.9%), 지원금액 1,383백만 원→2,848백만 원(+105.9%)으로 증가

■ 여성·후기노인·1인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이 주 이용층

- (성별) 여성 약 56%·남성 약 44%, 여성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75세 이상 후기노인
- (세대) 후기노인 이용비중 평균 약 40.1%로 최다, 중장년층도 평균 약 27.6%로 상당
- (가구구성) 1인 가구 이용비중이 7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
- (지역) 동별 이용인원 격차 최대 약 30배 안팎 수준

■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이용 서비스 유형에 뚜렷한 차이

- (성별) 남성은 식사지원 이용비중(51.2%)이 높고, 기타 서비스는 대체로 여성보다 저조
- (세대) 39세 이하는 심리상담 이용비중이 높고(아동·청소년 55.8%, 청년 32.6%), 40세 이상은 식사지원에 편중(중장년 50.8%), 고연령 세대일수록 생활, 동행돌봄 비중 상승(후기노인 29.4%, 11.8%), 청년은 주거안전 비중(28.4%)이 전 세대 최고
- (가구구성) 1·2인 가구는 식사지원 이용비중(45.6%, 44.5%)이 가장 높고, 생활돌봄, 주거안전 순. 3인 이상 가구는 심리상담(38.6%)이 가장 높고 식사지원, 주거안전 순

■ 돌봄공백층 포용·대상자 발굴로 긴급·틈새돌봄 실현

-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던 돌봄공백 상태 이용자가 전체의 약 80% 내외로 대다수를 차지, 새빛돌봄서비스가 사업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확인
- 대상자 발굴에 의한 새빛돌봄서비스 신청자가 1,834명(2024 기준 50.2%)→1,773명(2025.10. 기준 38.9%)으로 신청경로의 상당 부분 차지

■ 정책방향: 성별·지역·세대·가구구성별 돌봄공백을 맞춤형 서비스와 전(全) 주기 성과관리로 빈틈없이 해소

① 이용자 특성-서비스 유형을 연결한 '맞춤형 돌봄 매칭' 체계 구축

- 성별·세대·가구구성별 예상 수요를 선제 안내하는 매칭 가이드라인 정비, 상담 단계에서 복합 돌봄수요를 동시 진단하는 체계 강화
- 이용자 특성과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분석하여 서비스 구성과 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② 기존제도의 사각지대(중장년·청년·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전략적 강화

- 식사지원 편중을 넘어선 생활·심리 영역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돌봄공백을 겪는 중장년 세대 대상 특화 서비스 개발(주민제안형·시민참여형 특화사업 활용)
- 지역의 아동·청소년, 청년 지원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저연령층의 심리·주거 위기에 대한 조기개입 경로 강화

③ 1인 가구 후기노인 세대 대상 통합 안전망 구축

- 돌봄 취약성이 중첩된 1인 가구 후기노인 대상으로 안부확인·응급대응·새빛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한 통합지원 강화
-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위험 악화나 재이용 필요성 확인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 실시, 기존 노인돌봄제도와 연계 강화

④ 지역별 서비스 공급역량 및 품질관리 강화

- 지역별 이용자 수와 돌봄수요를 고려하여 제공기관·전담인력·지역자원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 균등한 서비스 품질 확보
- 서비스 개시 소요일, 담당인력 1인당 이용자 수, 이용자 만족도 등 지역별 공급역량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지표 마련

⑤ 발굴-지원-연계의 전(全) 주기 성과관리체계 구축

- 행정복지센터·보건소·의료기관·지역주민·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결한 다층적 발굴 체계 가동, 정보취약계층과 고립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 단순 이용실적보다 신규 대상자 발굴 및 타 서비스 연계 실적, 돌봄공백 해소율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관리하여 사업의 실질적 성과 제고

1. 수원새빛돌봄 사업 개요

□ 돌봄 사각지대 없는 통합돌봄체계의 구축과 지역기반의 돌봄공동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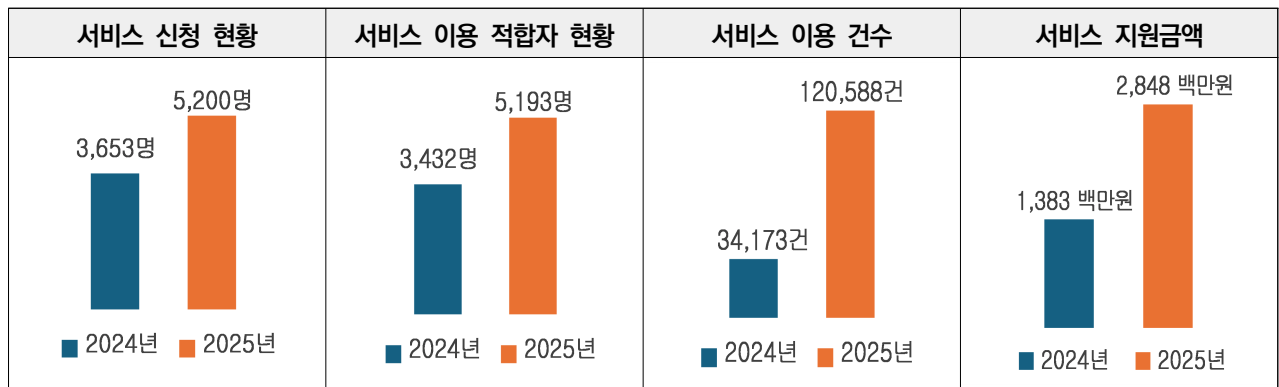
- 수원새빛돌봄 사업은 민선 8기 3대 전략 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돌봄특례시’ 구현의 핵심정책 사업으로 출범
- 돌봄에 대한 정보취약, 돌봄 서비스의 시간적 공백, 서비스의 부족과 부재로 인해 현 복지제도 하에서 나타나는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3년 7월부터 시행
-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지원 기준 확대(중위소득 75%→120%), 서비스 확대(4대11종→8대16종), 지원한도 확대(100만원→150만원)를 통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공백을 신속히 메우는 틈새돌봄 기능 강화

<수원새빛돌봄사업 지원내용>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신청 자 격	거주 요건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소득 기준 (전액지원) 중위소득 75%이하 (자부담) 중위소득 75%초과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전액지원) 중위소득 120%이하, 국가유공자 (차등지원) 120%초과, 150%이하 50%지원 (자부담) 중위소득 150%초과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전액지원) 중위소득 120%이하, 국가유공자 (차등지원) 120%초과, 150%이하 50%지원 (자부담) 중위소득 150%초과
비용 지원	1인당 1,000천원(한도)	1인당 1,500천원(한도)	1인당 1,500천원(한도)
기본형 서비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4대 11종 돌봄서비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7대 15종 돌봄서비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사범) (8대 16종 돌봄서비스)
기타 서비스	식사배달 시범사업(주민제안형)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시범 서비스 (주민제안형) 임산부 돌봄공동체 조성 & 가사서비스 지원 (시민참여형)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주민제안형) 시민참여형 특화사업 공모 추진 누구나 든든한 한끼(자부담 참여형)

□ 본격 시행 2년간, 이용 실적 및 지원 규모 모두 증가세

-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신청인원은 2024년 3,653명에서 2025년 5,200명으로 42.3% 증가
-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이용 적합자는 2024년 3,432명에서 2025년 5,193명으로 51.3% 증가
-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이용건수는 2024년 34,173건에서 2025년 120,588건으로 252.9% 증가
-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지원금액은 2024년 1,383백만 원에서 2,848백만 원으로 105.9% 증가



주1: 서비스 신청 후 적합심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 적합 여부를 판별함

주2: 2025년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이하 2025년 10월 31일 기준 데이터와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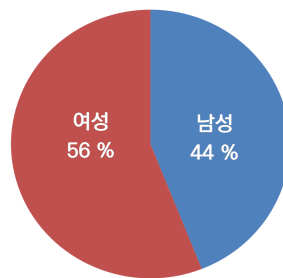
2.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이용자 특성과 서비스 이용 현황

1)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성별 이용 현황

□ 수원새빛돌봄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이용

- 2024년과 2025년 모두 전체 이용자 중 남성이 약 44%, 여성이 약 56% 차지
 - 2024년 총 이용자 3,432명 중 남성은 1,511명, 여성은 1,921명
 - 2025년(10. 31.기준) 총 이용자 4,548명 중 남성은 2,013명, 여성은 2,535명

<성별 이용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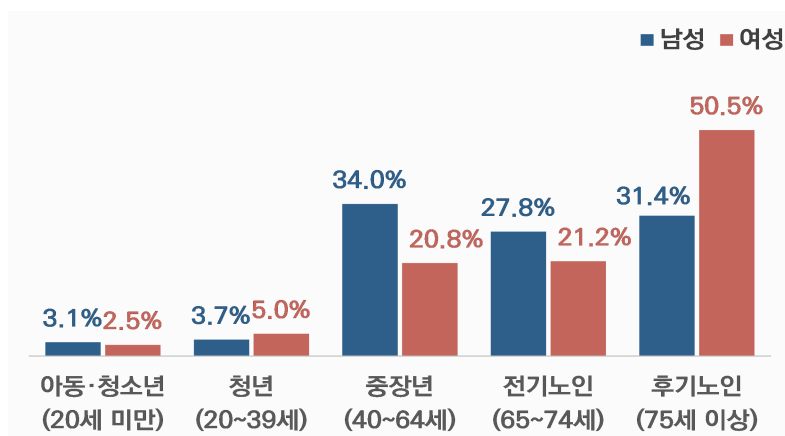


주: 2024, 2025년

□ 여성 이용자 중 절반이 75세 이상, 남성 이용자의 셋 중 하나가 중장년

- 여성 이용자의 절반 정도가 75세 이상 후기 노인세대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
- 남성 이용자는 40~64세의 중장년층 비중이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후기노인(31.4%), 전기노인(27.8%) 등 순으로 세 세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 여성에 비해 중장년, 전기노인 세대의 비중이 높은 수준
- 아동·청소년, 청년 세대는 남녀 모두 5.0% 이하로 이용 비중이 미미

<이용자 성별 연령대 구성비중(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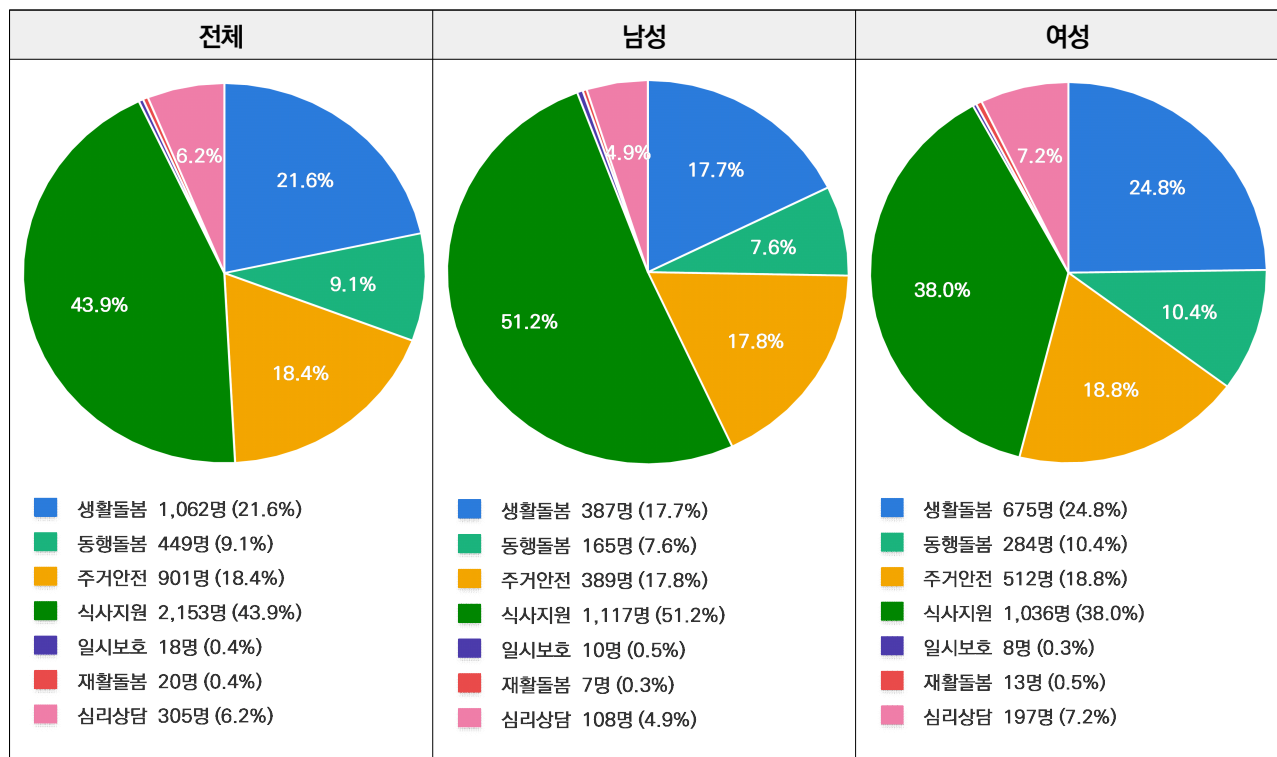
주1: 2025. 10. 31. 기준

주2: 만 나이 기준, 세대 구분은 2025년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의 연령 구분기준에서 전기 및 후기 노인세대를 추가적으로 구분함

□ 성별에 따른 돌봄서비스 이용 유형 차이

- 2025년(10. 31. 기준), 새빛돌봄서비스 이용인원은 식사지원이 2,153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돌봄 1,062명(21.6%), 주거안전 901명(18.4%), 동행돌봄 449명(9.1%) 순
- 남성 이용자의 과반수인 51.2%가 식사지원 서비스에 집중, 다음으로 주거안전(17.8%), 생활돌봄(17.7%) 순
- 여성의 경우, 식사지원 서비스 이용 비중은 전체의 38.0%로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반면 생활돌봄 (24.8%), 주거안전(18.8%), 동행돌봄(10.4%), 심리상담(7.2%) 서비스는 남성보다 더 많이 이용

<성별 서비스 이용인원 현황(2025)>



주1: 2025. 10. 31. 기준

주2: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복하여 산정

2)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지역별 이용 현황

□ 지역(동)에 따라 새빛돌봄서비스 이용인원에 편차 발생

- 지역별 연령분포, 소득수준, 주거 형태의 차이에 따라 동별 서비스 이용인원 격차가 최대 약 27배~32배 수준
 - (2024년) 광고2동 및 호매실동 이용인원이 1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1동 및 망포1동이 5명으로 가장 적어 최다 동과 최소 동 간 격차 27.4배
 - (2025년)¹⁾ 우만1동 이용인원이 3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1동이 11명으로 가장 적어 최다 동과 최소 동 간 격차 31.5배

1) 2025.10.31. 기준

- 지역별 편차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인구, 소득, 고령화 수준, 주거형태 등)에 기인한 부분이 있어 단순히 복지 불균형의 문제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나 편차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공급역량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

- 지역별 편차의 원인이 서비스 수요의 문제인지 그 외의 요인(발굴·홍보·접근성 수준 등)인지 진단 필요
- 지역별 이용수준 차이가 공급측면에서 서비스 품질(신속성, 대응성, 충분성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 서비스 제공기관 확보 및 연계, 담당인력 확보, 홍보 및 발굴 역량 제고, 지역자원의 활용 등의 문제가 핵심 쟁점
 - 지역별 이용인원 대비 제공기관 수, 담당인력 1인당 이용자 수, 평균 서비스 개시 소요일, 만족도 수준 등에 대한 관리 실시

<지역(동)별 이용인원 현황>

구분	2024년			2025년		
	순위	동	이용인원	순위	동	이용인원
이용자 순위 상위 10개 동	1	광고2동	137	1	우만1동	347
	1	호매실동	137	2	서둔동	201
	3	서둔동	136	3	금곡동	198
	4	매탄2동	131	4	조원1동	182
	5	금곡동	127	5	매탄2동	177
	5	세류2동	127	6	호매실동	162
	7	원천동	125	7	영화동	157
	7	평동	125	8	정자2동	155
	9	매탄3동	112	9	평동	149
	9	율천동	112	10	연무동	147
이용자 순위 하위 10개 동	1	광고1동	5	1	광고1동	11
	1	망포1동	5	2	조원2동	21
	3	영통1동	8	3	매산동	24
	4	영통2동	9	3	세류1동	24
	5	조원2동	12	3	영통3동	24
	6	정자3동	13	6	정자1동	25
	7	정자1동	14	7	입북동	32
	8	세류1동	16	8	영통2동	36
	9	입북동	23	8	정자3동	36
	10	망포2동	25	10	망포2동	37

주1: 2025년은 10월 31일 기준

주2: 2024년 식사지원 서비스는 8개동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이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3)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세대별 이용 현황

□ 후기노인의 이용비중이 가장 높으나 중장년층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

- 이용자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2024년과 2025년 모두 75세 이상 후기 노인이 가장 큰 비중(38.1%, 42.1%)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중장년층, 전기 노인층, 청년, 아동·청소년 순
 - 사회복지서비스의 주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체 이용자의 3분의 2 수준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 외의 세대 중 특히 중장년층(2024년/28.6%, 2025년/26.6%)의 이용도 두드러짐
 - 후기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25년, 전년보다 그 비중이 상승하여 초고령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로서의 성격 강화
 - 중장년층은 질병·실직·이혼·사고 등에 의해 돌봄필요가 발생하나 기존 복지제도와 접점이 부족하여 돌봄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다수, 새빛돌봄서비스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 수행
- 청년, 아동·청소년 세대의 경우 2년 연속 7% 수준
 - 해당 세대 이용 저조 원인이 실질적 수요 부재인지 또는 제공 서비스 부적합, 이용 접근성 제약,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미흡 등 공급측 요인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

<세대별 이용자 현황>

연도	구분	합계	아동·청소년 (0~19세)	청년 (20~39세)	중장년 (40~64세)	노인		
						계	전기 노인 (65~74세)	후기 노인 (75세 이상)
2024년	수(명)	3,432	94	171	980	2,187	881	1,306
	비중(%)	100.0	2.7	5.0	28.6	63.8	25.7	38.1
2025년	수(명)	4,548	126	201	1,212	3,009	1,096	1,913
	비중(%)	100.0	2.8	4.4	26.6	66.2	24.1	42.1

주1: 만 나이 기준

주2: 세대 구분은 2025년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의 연령 구분기준에서 전기 및 후기 노인세대를 추가적으로 구분함

주3: 2025년은 10월 31일 기준

□ 세대별 돌봄서비스 이용 유형 차이

- 2025년(10. 31. 기준), 아동·청소년 세대는 심리상담 이용비중이 55.8%에 달해 타 세대와 구분되는 서비스 이용 경향
- 청년 세대 역시 심리상담 이용비중이 32.6%로 가장 높았으나 다음으로 식사지원(29.8%), 주거안전(28.4%)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주거안전 서비스 이용 비중이 전 세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
- 중장년층은 식사지원에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주거안전 순
- 전기 및 후기 노인 세대의 경우 모두 식사지원, 생활돌봄, 주거안전, 동행돌봄, 심리상담 순을 보이고 있으나, 후기노인 세대에서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이용 비중 증가 경향
- 재활돌봄과 일시보호는 전 세대에서 1% 미만의 저조한 이용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 중장년, 전기노인에서 이용 사례가 일부 확인

- 요컨대 중장년층 이후(40세 이상) 세대의 경우 식사지원에 이용 비중 편중, 아동·청소년 및 청년세대(39세 이하)의 경우 심리상담에 이용이 집중되어 이후 세대와 구분
 - 식사지원의 경우 중장년층의 약 50.8%가 이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다음으로 전기노인(43.0%), 후기노인(42.6%) 순
- 대인돌봄형 서비스(생활돌봄 및 동행돌봄)일수록 후기노인 세대의 이용 비중이 높음, 이와 같은 서비스는 단가가 높고 수요가 지속적이므로 후기노인 이용자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 관리체계, 서비스 연계에 대한 검토 중요

<주요서비스 세대별 서비스 이용현황>

구분		기본형 서비스(7대 15종)							
		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전체	수	4,908	1,062	449	901	2,153	18	20	305
	비율(%)	100.0	21.6	9.1	18.4	43.9	0.4	0.4	6.2
아동·청소년	수	129	5	8	10	33	1	0	72
	비율(%)	100.0	3.9	6.2	7.8	25.6	0.8	0.0	55.8
청년	수	215	9	7	61	64	2	2	70
	비율(%)	100.0	4.2	3.3	28.4	29.8	0.9	0.9	32.6
중장년	수	1,308	159	77	263	665	5	10	129
	비율(%)	100.0	12.2	5.9	20.1	50.8	0.4	0.8	9.9
전기노인	수	1,188	280	112	244	511	8	7	26
	비율(%)	100.0	23.6	9.4	20.5	43.0	0.7	0.6	2.2
후기노인	수	2,068	609	245	323	880	2	1	8
	비율(%)	100.0	29.4	11.8	15.6	42.6	0.1	0.0	0.4

주1: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복하여 산정

주2: 2025.10.31. 기준

4) 수원새빛돌봄서비스 가구구성별 이용 현황

□ 1인 가구의 이용비중이 전체의 7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

- 2024년, 2025년 이용자 가구원 수 현황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각각 전체의 77.9%와 76.4%를 차지, 다음으로 2인 가구(14.0%, 16.0%), 3인 이상 가구(8.1%, 7.6%) 순
 - 수원새빛돌봄서비스는 돌봄을 대신할 가구원이 없는 1인 가구를 주된 대상으로 지원

<이용자 가구 구성 현황>

연도	구분	합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2024년	수(명)	3,432	2,675	480	277
	비중(%)	100.0	77.9	14.0	8.1
2025년	수(명)	4,548	3,473	726	349
	비중(%)	100.0	76.4	16.0	7.6

주1: 만 나이 기준

주2: 2025년은 10월 31일 기준

□ 가구 구성별 돌봄서비스 이용 유형 차이

- 2025년(10. 31. 기준), 1인 및 2인 가구 이용자의 경우 식사지원, 생활돌봄, 주거안전, 동행돌봄, 심리상담 순으로 이용비중이 높은 경향
- 3인 이상 가구 이용자는 심리상담의 이용비중이 가장 높고 식사지원 및 생활돌봄 이용비중이 1·2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인터뷰 결과 등을 검토하였을 때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나 가족부양이 어려운 2인 가구의 경우 식사지원이나 생활돌봄의 필요성이 큰 반면,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자녀(아동·청소년, 청년세대) 등의 심리상담 필요성이 큰 경우가 많은 데 기인

<주요서비스 가구구성별 서비스 이용현황>

구분		기본형 서비스(7대 15종)							
		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전체	수	4,908	1,062	449	901	2,153	18	20	305
	비율(%)	100.0	21.6	9.1	18.4	43.9	0.4	0.4	6.2
1인가구	수	3,777	840	341	721	1,724	15	13	123
	비율(%)	100.0	22.2	9.0	19.1	45.6	0.4	0.3	3.3
2인가구	수	771	178	85	114	343	2	6	43
	비율(%)	100.0	23.1	11.0	14.8	44.5	0.3	0.8	5.6
3인 이상 가구	수	360	44	23	66	86	1	1	139
	비율(%)	100.0	12.2	6.4	18.3	23.9	0.3	0.3	38.6

주1: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중복하여 산정

주2: 2025.10.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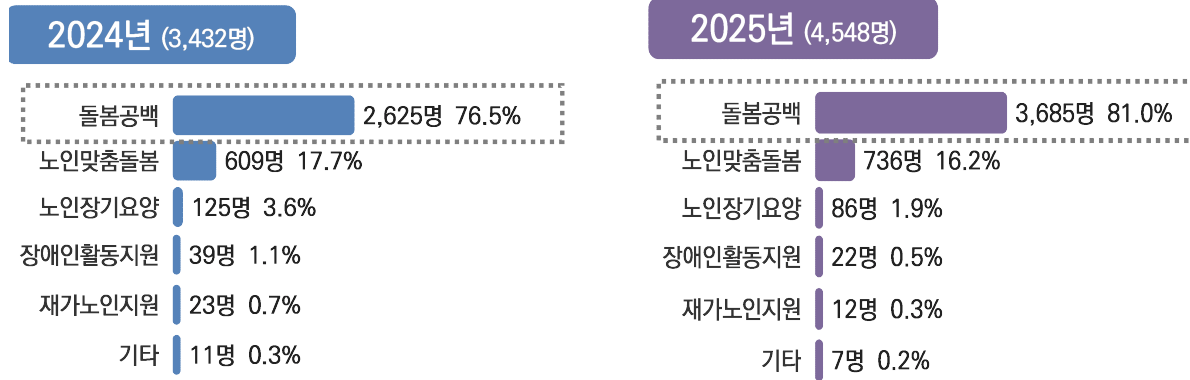
5)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이용자 돌봄서비스 수급 및 대상자 발굴현황

□ 기존 돌봄공백 계층이 새빛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

- (2024년) 새빛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돌봄공백 상태에 있었던 사례가 2,625명으로 약 76.5% 수준
- (2025년)²⁾ 새빛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돌봄공백 상태에 있었던 사례가 3,685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약 81.0% 수준
- 가장 많이 받았던 기존 돌봄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전체 이용자의 약 16~18%가 이용하였으며,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순
 - 기존 돌봄서비스로 충족되지 못하는 추가·긴급 돌봄수요의 발생으로 새빛돌봄서비스를 이용
- 이용자의 대부분이 기존 돌봄공백 계층이라는 점에서 사업목표인 '긴급·틈새돌봄' 기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2) 2025년 10월 31일 기준

<새빛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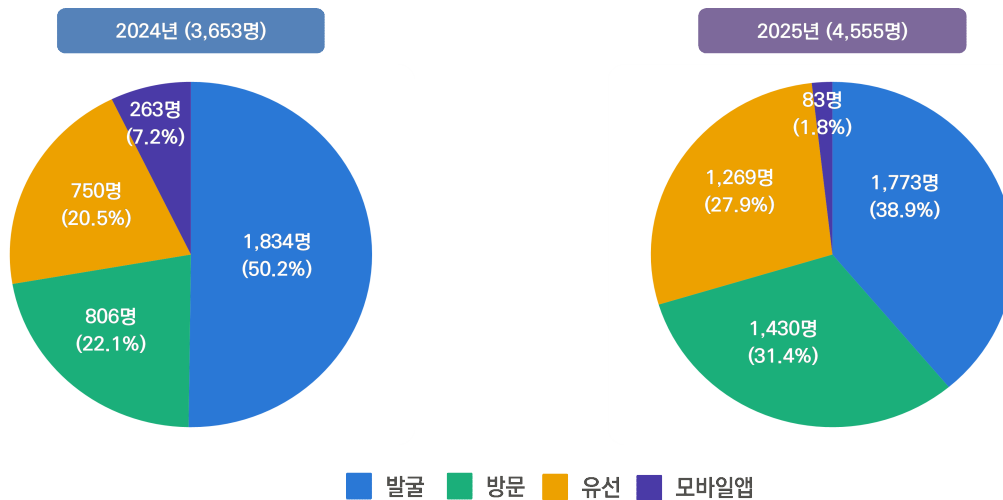


주: 2025년은 10.31일 기준

□ 새빛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이 신청경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

- 2024년 새빛돌봄 서비스 신청자 중 자발적 신청이 아닌 발굴에 의한 경우는 1,834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인 50.2% 차지
 - 자발적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신청(22.1%), 유선(20.5%), 모바일앱(7.2%) 순
- 2025년 10월 31일 기준, 새빛돌봄 서비스 신청자 중 자발적 신청이 아닌 발굴에 의한 경우는 1,773명으로 전체의 38.9% 수준
 - 자발적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신청(31.4%), 유선(27.9%), 모바일앱(1.8%) 순
- 2024년, 2025년 발굴실적 건수는 유사하나 사업 홍보효과 확대 등으로 인해 자발적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상대적 발굴비중이 감소한 경향
 - 또한 예산제약으로 증가하는 신청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발굴도 어려운 상황
- 새빛돌봄서비스는 돌봄공백 상태의 일시적·긴급 돌봄욕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발굴이 사업효과와 직결. 이에 타복지서비스 연계,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홍보 등을 통한 신규사례 발굴 노력 필요

<새빛돌봄서비스 신청유형 현황>



주1: 유관기관의 신청은 발굴건수에 포함

주2: 2025년 데이터는 10.31일 기준으로 p2의 2025년 총 신청자수와 차이가 있음

3.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 수원새빛돌봄서비스는 돌봄공백 상태의 여성·후기노인 세대·1인 가구 등의 돌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

- **(성별)** 여성의 비중(56.0%)이 남성(44.0%)에 비해 높으며, 여성 이용자의 약 50%가 75세 이상 후기 노인 세대에 집중, 남성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는 40~64세의 중장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아 여성과 차이
- **(지역)** 지역별 연령분포, 소득수준, 주거 형태의 차이에 따라 동별 서비스 이용인원 격차가 최대 약 27배(2024년), 32배(2025년 10월 31일 기준) 수준
- **(세대)** 75세 이상 후기노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중장년층, 전기 노인층, 청년, 아동·청소년 순. 65세 이상 노인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 외의 세대, 특히 중장년층의 이용도 상당
- **(가구구성)** 1인 가구의 이용비중이 7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 돌봄을 대신할 가구원이 없는 1인 가구 중심의 지원 구조
- **(기존돌봄서비스 수급 및 대상자 발굴현황)** 이용자 중 기존 돌봄공백 계층이 80%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 서비스 신청의 상당부분이 돌봄공백에 놓인 대상자 발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돌봄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효과가 일정 부분 확인됨

□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이용 서비스 유형에 차이

- **(성별)** 식사지원 서비스는 남녀 모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남성의 식사지원 서비스 이용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은 반면, 생활돌봄 및 동행돌봄의 이용비중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세대)** 중장년층 이후 세대의 경우 식사지원에 이용비중이 편중되어 있으며 중장년층에서 가장 높은 양상. 저연령층 세대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비중이 높고, 고연령층 노인세대로 갈수록 생활돌봄 및 동행돌봄의 이용비중이 증가, 주거안전은 청년세대에서 이용비중이 높은 경향
- **(가구구성)** 1인 및 2인 가구 이용자의 경우는 식사지원, 생활돌봄, 주거안전, 동행돌봄, 심리상담 순으로 이용비중이 높으며, 3인 이상 가구는 심리상담의 이용비중이 가장 높고, 1, 2인 가구에 비해 식사지원 및 생활돌봄의 비중이 저조

2) 정책제언

□ 정책방향: 성별·지역·세대·가구구성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공백을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와 사업 전(全) 주기 성과관리로 빈틈없이 해소

● [제언 1] 이용자 특성과 서비스 유형을 연결한 '맞춤형 돌봄 매칭' 체계 구축

- 성별·세대·가구구성 등을 근거로 예상되는 필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를 상담 단계에서 적극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 매칭 가이드라인 강화

- 이용자 특성·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축적·분석하는 수요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체계 강화, 매년 서비스 구성과 지원방식의 적정성을 재점검
- 식사지원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식사지원에 편중, 접근성이 높은 식사지원 외에 긴급한 다른 돌봄 서비스 수요가 있는지 세밀한 사정 및 발굴 필요

○ [제언 2]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청년,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전략적 강화

-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가 65세 이상에 초점을 두어 그 외 세대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 다수
- 실직, 질병, 가족해체 등으로 돌봄공백을 겪는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특화 서비스 개발 필요(식사지원 편중을 넘어선 생활·심리 영역 서비스 다각화, 주민제안형·시민참여형 특화사업 활용)
- 수요가 높은 아동·청소년, 청년 대상 심리·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년지원 기관 등과 연계한 조기개입 경로 강화
- 세대별 구체적 수요분석을 통해 사업홍보 및 대상자 발굴 방식의 차별화 필요

○ [제언 3] 1인 가구 후기노인 세대 통합 안전망 구축

- '취약 안의 취약' 계층인 1인 가구 후기노인 세대에 대한 집중 대응 정책 필요
-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안부확인, 응급대응, 새빛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통합 패키지 서비스 강화
- 단발성 서비스가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이용종료 후 악화여부, 재이용 필요성 등을 추적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고령화로 인한 후기노인 이용자 증가가 예측되므로 재정지속성, 관리체계, 기존제도와 서비스 연계에 대한 검토 중요

○ [제언 4] 지역별 서비스 공급역량 및 품질관리 강화

- 서비스 수요의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수요 대비 제공기관 수, 행정역량, 지역자원의 충분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모든 지역에서 안정되고 균등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적정 수의 제공기관 확보, 전담인력 강화, 지역 자원과의 연계,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 도모
- 새빛돌봄서비스 제공역량 및 품질 향상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가 아닌 자부담을 통해서도 활용하고자 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도약 가능

○ [제언 5]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발굴-지원-연계의 전(全) 주기 성과관리체계 구축

- 돌봄공백 해소는 새빛돌봄서비스의 주요성과로서 돌봄공백에 놓인 긴급한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존 제도 및 지역자원과 연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
- 정보취약계층, 고립가구 등에 대한 다층의 돌봄공백 발굴 네트워크(통·반장 등 지역주민, 행정복지센터·보건소·의료기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서비스 제공기관 등) 가동 및 운영성과 관리 실시
- 일시·긴급돌봄을 본질로 하는 새빛돌봄서비스 종료 후에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사회복지 제도 및 지역 민간 자원과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연계성과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 신규 대상자 발굴 및 타서비스 연계 실적, 돌봄공백 해소율 등을 핵심성과지표(KPI)화 하고 지속 관리함으로써 사업성과 제고 필요

SRI Brief | 발간목록

호수	집필자	제목	발간일자
제119호	변미리, 박민진 등	(도시정책지표연구) 수원시민의 웰빙과 공동체 역량	2026.01.06.
제120호	민보경, 박민진	(도시정책지표연구) 인구이동을 통해 본 수원의 인구 특성	2026.01.15.
제121호	박민진, 박영미 등	수원 3대 가을 축제 외국인 참여 특성과 시사점	2026.01.20.
제122호	박민진 등	(도시정책지표연구) 수원과 서울의 도시정책지표 비교와 함의	2026.01.27.
제123호	양은순, 박민진 등	수저우에서 시작된 도시혁신: 장신성(章新勝) 리더십과 중-싱 협력의 확산	2026.02.03.
제124호	박민진, 장정식	수원 3대 가을 축제 온라인 반응 및 글로벌 홍보 전략 제안	2026.02.10.
제125호	박민진, 박영미 등	SRI 시민패널 기반 축제 참여행태 분석	2026.02.19.
제126호	박민진, 박영미 등	수원시민의 생활체감과 2026년 경기 전망	2026.02.24.
제127호	정재진	수원 중고차 산업 효과 분석과 특화 발전 방안	2026.03.03.
제128호	박민진, 박영미 등	행복 수준에 따른 수원시 청소년의 삶의 격차	2026.03.10.
제129호	김도훈, 이지원 등	다목적 모빌리티를 통한 '수원형 N분 도시' 실현 전략	2026.04.14.
제130호	박민진, 박영미 등	수원 X세대 심층분석	2026.04.21.
제131호	박민진, 채우리 등	수원시 1인가구의 현주소 : 다인가구와 다르고, 세대마다 또 다르다	2026.05.04.
제132호	최도인, 박민진 등	로컬이 글로벌이 되는 방정식:K-컬처 시대 수원 3대 가을 축제의 세계화 전략	2026.05.12.
제133호	김유빈, 최석환 등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과 수원형 중립형 R&D허브 구축 방향	2026.05.19.
제134호	정다래	미국 R&D클러스터의 선도기업 유치 전략과 수원시 적용 방향	2026.05.26.
제135호	박민진, 박영미	두 개의 봉우리, 두 개의 과제: 수원시 인구 구조로 본 일자리 정책 고도화 방향	2026.06.09.
제136호	김진언	수원시민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가격 전망	2026.06.16.
제137호	강은하, 오미현 등	폭염 대응의 전환점: “재난 관리”에서 “열 회복력 도시”로	2026.06.23.
제138호	양은순, 임채실	2026년 하반기 경제 전망	2026.07.6.
제139호	정란수, 신한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쟁점과 정책제언	2026.07.14.
제140호	박진우, 최석환 등	균형발전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수도권 정책제언	2026.07.20.
제141호	허경재	주거실태조사 20년, 수원시 현황과 과제	2026.07.28.
제142호	김도훈	수원시 생활권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2026.08.04.
제143호	박진우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쟁점과 정책 시사점	2026.08.11.
제144호	안희자, 신한나	수원 로컬관광 가이드투어 활성화 방안	2026.08.18.
제145호	정재진	재정분권 30년, 지방재정은 얼마나 나아졌나?	2026.08.25.
제146호	정재진	OECD 국가와 비교해 본 재정분권 수준과 시사점	2026.09.01.
제147호	정재진	“재정분권”, 앞으로의 원칙과 방향은?	2026.09.08.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Brief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성진 | 편집위원장 정재진 | 편집위원 강은하 김도훈 김타균 유현희 최석환 한연주